

‘후배 동문들의 精誠으로 건강기원’

가산초총동문회, 원로동문 건강기원 위안잔치



가산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류인선·사진)는 6월17일 11시부터 내촌면 마명리에서 제2회 원로동문 건강기원 위안잔치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위안잔치에 앞서 오전9시부터 대형버스 2대를 이용해 원로동문들을 모시고 소흘읍 직동리에 위치한 아프라카박물관을 관람하기도 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류인선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역대 동문회장과 후배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내빈으로 고조흥 국회의원, 윤영철 가산초등학교 교장, 정종근 포천시의회 의원, 이희용 포천예총회장, 이재욱 포천문인협회 회장등이 참석했다. 류인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배 없는 후배는 없다. 선배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깎듯이 모셔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자랑스

런 전통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오늘 참석하신 원로동문 여러분들의 만수무강과 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조흥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원로동문들을 위한 위안잔치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며 “선배들을 모실 줄 아는 가산초등학교 총동문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로동문이며 전 경기도교육위원으로 활동한 리호중 포천한 시사 대표는 ‘한국의 문화’라는 주제로 실시한 특강을 통해 “세계기록유산은 전 세계 59개국 120개가 지정돼 있는데 한국의 기록문화가 6개나 지정된 것은 우리조상들의 지혜와 열이 담긴 문화가 매우 훌륭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조선경국대전에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임금은 하늘을 존중하고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기록이 있어 한국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가 실행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밝혔다.



가산초등학교 총동문회 리호중 원로동문이 ‘한국의 문화’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리 회장은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은 조상들의 훌륭한 문화유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지키고 보전하는 일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하며 영조대왕이 신하 조종회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실, 조선왕조 27대 왕 중에서 조선왕 조실록을 본 사람은 연산군 밖에 없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① 후투티 [hoopoe]

날개로 햇볕 가려 솔로몬 왕을 더위에서 구해준 새

인디언 추장 같은 머리 깃을 하고 있는 후투티가 입에 땅강아지 한 마리를 물고 와 돌기와지붕 용마루 틈새로 속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오디새라고도 부르는 이 새는, 여름철새 중 제일먼저 우리나라에 와서 번식을 한 후 제일 먼저 남쪽으로 이동하는 새입니다. 몸길이 약 28cm, 날개길이 약 15cm. 깃털은 검정 색과 흰색의 넓은 줄무늬가 있는 날개와 꼬지, 그리고 검정 색의 긴 땃기 끝을 제외하고는 분홍색을 띤 갈색, 머리꼭대기의 깃털은 크고 길어서 우관(羽冠)을 이루고 자유롭게 늘었다 세웠다 하는데, 그동안 관찰해 본 결과 위협을 느끼고 경계할 때 바짝 세운 모습이 마치 머리엔 깃을 꽂은 인디언 추장 같은 모습을 보이더군요.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새는 동지도 인가 근처의 고목나무나 기와지붕의 용마루 틈새에 동지를 틀 정도로 친근한 새입니다. 아름답게 생긴 외모와는 달리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이새는 자신의 배설물로 곤충을 유인하여 잡아먹는 지혜도 있는 새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후투티에 관한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사막을 여행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후투티 무리들이 나타나 날개를 활짝 펴고 햇빛을 가려 솔로몬 왕을 더위에서 구해준 새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오디새(후투티)들에게 상을 주려고 불러 들였습니다. 그러자 오디새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솔로몬 왕과 같은 황금관을 갖고 싶다고 하자 이들의 청을 허락하여 오디새의 머리에 황금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눈부신 왕관을 머리엔 단 오디새들은 의기양양하여 물이 조금이라도 고여있는 곳으로 가면 머리를 숙이고 자기 모습을 물에 비춰보며 자만감에 빠져 으스스대며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분수에 맞지 않게 욕심을 부리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법이지요. 황금관은 너무 무거워 언젠가 달고 있으면 귀찮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금관을 탐내



2007.5.25 포천시 소흘읍에서 촬영

는 사람들 때문에 이들은 하루도 편하게 살수도 없게 되었지요. 금관만큼 거추장스런 게 없다고 생각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오디새들은 다시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왕관은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니 떼어달라고 청하게 되었고, 솔로몬 왕은 황금관 대신 황금빛 벼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옛날의 영화를 잊을 수가 없어 지금도 후투티 들은 물이 고인 곳에 가면 으레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본다 고 합니다. 이처럼 이국적으로 생긴 후투티의 어원을 살펴보면 후투티라는 이름이 순수한 우리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후투티는 울음소리가 ‘후 - 후 -’하고 울게 되는데 여기에다 오디라는 이름이 결합하여 후오디에서 후투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



* 독자 여러분의 새(鳥)에 대한 제보를 바랍니다. 포천신문 조서위원장 이상일 017-705-0994

“생활의 어려움 웃음으로 극복해요”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2007 수련대회 성료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단장 임경순)이 6월14일 오전10시부터 영종면 소재 백로주 유원지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수련대회는 개회식, 8행시 짓기, 웃음치료 특강,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임경순 단장은 “ 그동안 주부명예 기자로서 기사제보는 물론 다양한

글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은 물론 포천신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수련대회를 통해 좀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두열 포천신문 전무이사는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주부명예기자단 여러분의 활짝 핀 얼굴을 만나

니 고맙고 반갑다”며 “오늘 수련대회를 계기로 주부명예기자단이 한 마음으로 주부명예기자 여러분은 물론이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 하시고 포천신문 발전에도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천신문 대표인론’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8행시 짓기는 1위~5위까지 5명을 선발했는데 1위 용경자 주부명예기자의 작품은 “포도송이 알알이 열매가 가네/ 천상의 한 줄기 햇살 포천신문에 비추니/ 신명나는 포천 소식의 문이 활짝 열려 있네/ 대대손손 여기 모여 포천의 미래 그려보세/ 표류하는 뱃배가 되지 말고 한네천의 유람선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두팔 펴려 안아주고 들어주며/ 논쟁보다 배려와 사랑으로 만들어보세”이다. 2위는 김미숙, 3위 김옥자, 4위 신현숙, 5위 권귀자 주부명예기자가 차지했다. 이어 가진 웃음치료 특강은 김순희 내촌지부장이 실시했는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한바탕 신나게



웃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했다. 특히 ‘웃음선’을 정해놓고 그 곳을 통과할 때 30초 동안 웃어야 하는 체험을 통해 웃는 연습을 하기도 했다. 특히 노래자랑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실력 있는 노래송씨를 자랑했다. 참석한 모든 주부명예기자들이 참가해 실시한 이날 노래자랑은 마치 주부가요열전을 방불케 했다. 이날 수련대회에 참가한 윤미숙 주부명예기자는 “맛있는 음식과 멋진 분위기, 신나는 웃음이 함께 한 2007 수련대회는 오랫동안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오늘 수련대회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7월 정기모임에는 임원개선에 관한 건이 상정됨에 따라 제4대 주부명예기자단장을 비롯해 총무, 부총무, 감사, 각 지부장 등을 원만하게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노래자랑에서 수상한 주부명예기자는 다음과 같다. ▶안미열(카스바의 여인) ▶박형민(당돌한 여자) ▶임선화(꽃고들 아가는 길) ▶김미경(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미정(무궁화)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주인의식 · 성실시공 · 실력배양

장마철에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합시다!

취급공사

● 공장	● 병원	● 가로등
● APT	● 상가	● 인테리어
● 빌딩	● 호텔	● 학교
● 기계소방	● 전기소방	● 신호등 및 기타

최 두 열
대표이사

“

열린경영으로 기업의 최고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포천한전 협력업체

고은종합전기(주)

■ 본사 :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빌딩 1층
 ■ 전화 : 031)542-9771 ~ 4 / Fax : 031)542-1115